

가사노동논쟁, 사회재생산, 맑페 사페 관련 읽을거리

알렉산드라김

아래 사회재생산, 리즈 보겔 등 이야기가 나와서 공유해봅니다.

저도 리즈 보겔 같은 이들이 개진한 논쟁점들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희안하게도 아직도 여전히 국내에서 번역 출간된 저작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이름이나 대강의 논조들만 몇몇 글들을 통해서 알음알음 접해왔네요.

(중략)

2. 가사노동 논쟁의 전개와 그 한계

1) 가사노동 논쟁의 개관

마르크스주의자들과 페미니스트 사이의 대립이 본격화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지만, 오늘날 양자의 실천이 교차했던 시기가 있었다는 점을 짐작하기란 요원하다. ‘마르크스주의는 경제를 통해 모든 것을 설명하려하고, 계급 모순 이외의 모순들을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페미니즘은 단지 문화적일 뿐이고, 최종심급에 무지하며 성별환원주의적인 정체성 정치의 경향을 띤다’: 티티 바타차리아(Tithi Bhattacharya)가 말하듯(Bhattacharya, 2013), 대략 이런 모양새로 평행선을 달리는 논쟁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예컨대 하이드 하트만의 논문은 이미 여성운동이 본격적으로 자신의 고유한 장소를 찾고 있었던 시기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와 페미니즘을 통합시키려는 최근의 시도들은 페미니스트인 우리에게 불만족스러운데, 이유인즉 그들은 페미니스트의 투쟁을 자본에 맞선 ‘더 큰’ 투쟁 속에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우리의 비유[결혼]를 더 지속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더 건강한 결혼 혹은 이혼이 필요하다.”(Hartmann, 1979: 1)

그러나 페미니즘은 초기 자유주의적 개혁의 흐름과 결합한 여성참정권운동을 중심으로 조직된 이후로, 20세기 중후반까지 세계 각지의 많은 좌파들 및 급진주의자들의 반자본주의적 실천들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었다. 4 당대의 남성혁명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로자 룩셈부르크, 클라라 제트킨, 알렉산드르 콜론타이 등은 마르크스주의와 페미니즘의 연대가능성을 증언하는 화신일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동거는 대략 70년대를 전후로 깨지고 마는데, 그것은 객관적 측면에선 권위적인 관료들과 국가에 대한 반발에 잇따라 자유를 지상의 가치로서 천명했던 68을 비롯한 당대 운동지형의 정세적 측면과, 모더니즘과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비판을 전제했던 ‘거대서사의 종언’ 테제와 맞물린 포스트모더니즘의 대두 등으로부터 연원하며, 주관적 측면에선 마르크스주의자들과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 벌어진, 이른바 “가사노동 논쟁”에서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물론 당시 논점이 자본주의에서 가사노동의 역할과 위상을 중심으로 짜여 있었던 점에서 알 수 있듯, 논쟁에 참여했던 논자들 대부분이 스스로를 사회주의적 페미니스트 혹은 마르크스주의적 페미니스트로 여기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나, 그 효과는 마르크스주의와 종별적 차이를 갖는 여성운동의 독자적인 공간을 열어줬었다고 볼 수 있다.

가사노동논쟁은 으레 1969년에 발표된 마가렛 벤스톤(M. Benston)의 『여성해방의 정치경제학(The Political Economy of Women's Liberation)』을 시작으로 하여 전개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Benston, 1973)5, 벤스톤이 줄리엣 미첼(J. Mitchell)의 작업을 경제의 문제를 지나치게 터부시한다며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볼 때, 보다 앞서 발표되었던 1966년의 줄리엣 미첼의 작업이 원사가 된 것으로 보인다(Mitchell, 1966). 줄리엣 미첼은 자신의 논문에서 가족이 자연적 대상으로 나타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가족의 형태나 그 속에서 여성이 부여받는 역할을 문화적 대상으로 볼 것을 요청한다(Ibid: 11). 그는 초기 마르크스가 오히려 푸리에에 비해 여성을 추상화된 존재론적 범주이자 인류학적 실체로서 다뤘음을 지적하며, 『독일 이데올로기』나 『자본』에 이르러서도 여성을 가족이라는 역사적 범주 속에서 뭉뚱그려 사고했음을 논한다(Ibid: 13-14). 그에게 엔겔스의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또한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서, 엔겔스는 사유재산제도의 출현시점과 여성억압을 엮어 사고함으로써 경제적 범주로 여성문제를 환원시키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이는 베벨(Bebel)과 시몬 드 보부아르(De Beauvoir)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Ibid: 15-17). 그에 따르면 이들로 대표되는 사회주의자들은 여성의 열악한 지위가 사적소유와 함께 시작된 매뉴얼화된 고된 노동으로부터 연원한 것이라 말하지만, 여성은 역사의 어느 국면에서도 노동으로부터 벗어나 본적이 없으며, 때론 남성들보다 더 많이 일할 때도 있었다는 것이다(Ibid: 17). 이 연장에서 미첼은, 여성이 생산에서 핵심적인 지위에 있지 못했던 까닭은 출산, 양육, 돌봄 등의 재생산영역에서 남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했기 때문이었음을 논증하고, 생산양식의 변화에 따라 재생산 양식이 변화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그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혁명적 운동은 여성이 처한 구조적 실체를 형성하는 ‘생산(여성 임노동의 문제), 재생산(가사노동의 문제), 사회화(젠더화된 양육의 문제), 섹슈얼리티(성적 자유의 문제)’ 네 가지 범주의 결합 양상을 분석하고, 이 중 약한 고리를 타격해야 한다(Ibid: 30-37). 여성문제를 역사적으로 변화되어온 가족의 범주에서 논의했다는 이유로 마르크스를 비판하는 대목이나 재생산양식을 생산양식과 분리하여 사고할 것을 요구하는 대목은, 미첼이 여성억압의 조건을 초역사적 수준에서 찾으려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는 성역할을 고착화하는 기제로서 근대적 가족이 행사하는 막대한 영향력을 간과하는 것처럼 보이며, 여성의 제문제를 경제의 영역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함으로써 특정한 방식으로 생산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경제와 젠더가 관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듯하다. 이렇듯 미첼의 작업은 그 각론에서 추상적이며,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를 유기적 결합 속에서 파악하는데 실패했고, 경제의 문제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보겔과 하트만, 벤스톤과 같은 보다 엄격한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에게 비판을 받지만(보겔, 1988: 229-231; Hartmann, 1979: 8-9; Benston 1973: 4-5 등을 참고하라), 마르크스주의적 문제설정 속에서 명쾌하게 조명되지 않은 지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던 만큼, 적잖은 이들에게 파문을 일으켰다.

(중략)

2) 가사노동 논쟁의 한계

위에서 살펴보았듯, 가사노동 논쟁은 재생산의 정의, 가사노동의 역할, 가사노동의 가치생산 여부, 여성 노동의 양태 등을 논제로 하여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었던 것은 역시 가사노동의 가치생산 여부라 할 수 있는데, 가치론을 이해하는 여러 논자들의 상이한 관점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결론은 크게 다음과 같이 양분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 가사노동은 노동력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자본주의적 생산에 핵심적이며, 가치를 생산한다.
2. 가사노동은 노동력 재생산에 개입함으로써 자본주의적 생산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지만, 가치를 생산하지는 않는다.

거칠게 구분하자면 전자에는 미첼, 달라 코스타, 페데리치, 하트만, 델피 등이, 후자에는 벤스톤, 모튼, 보겔, 자레츠키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가사노동논쟁의 구도가 가치론을 중심으로 분할되었다는 점은, 당대의 페미니스트들이 여성주의 운동의 비전을 규정함에 있어 마르크스주의로 표상된 자본주의 비판의 맥락을 적극적으로 고려했다는 점을 보여주기에도, 양 진영이 더 이상 아무런 접점도 지니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오늘날의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으나, 비판적으로 조명될 지점 또한 있다. 특히 가사노동이 가치를 생산한다는 입장에 섰던 미첼, 달라 코스타, 제임스, 페데리치, 하트만, 델피 등 논쟁의 한 축을 형성했던 이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미처 다루지 못한 이들 또한 공유하고 있는 한계를 간략히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략)

출처 : <https://fmtl.tistory.com/101?category=688927>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해서 포괄적인 연구 하시는 독립연구자분 블로그

이밖에

<https://ezolog.tistory.com/3>

<https://en-movement.net/102>

이 글들도 참조하면 좋을 듯 하네요